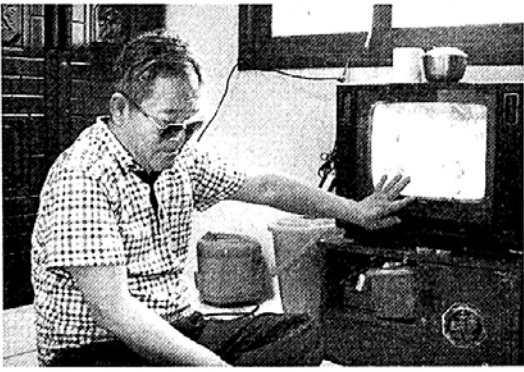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 '후원합시다'



시각장애인 김승기 씨가 오늘도 어김없이 TV의 전원을 켜고 있다.

실명 독거노인 낚은 TV '애지중지'

## "내겐 어머니 같아요"

방 한구석에 놓인 텔레비전. 시각장애인들에게는 분명 쓸모 없는 물건이다. 그러나 김승기(72) 노인에게만은 그렇지 않다. 아흔 살 어머니 박월하 보살이 즐겨봤다는 그 고물덩어리. 6년 전 가을, 어머니 박 씨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후부터 이 볼품없는 텔레비전은 김 노인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다.

### 자살기도 두번이나

두 눈을 잃은 지도 38년째. 텔레비전이 제대로 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조차 알 수 없지만 고스란히 남아있는 어머니의 체취만큼은 느낄 수 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이렇게 유언하셨지. 내가 죽거든 따라 죽어라. 장남이라고 남에게 천대받지 말고..."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어. 매년 다가오는 6월이 되면, 내 삶을 이렇게 단든 6.25를 생각하게 돼. 한 맺힌 그날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때 떠나려고..."

1950년 한국전쟁. 김 노인의 불행은 여기서 시작됐다. 51년에 징집돼 참전한 김 노인은 총알 파편에 왼쪽 눈을 크게 다쳤다. 이후 또다시 60년 군에 입대하게 된 김 노인은 후유증으로 인한 '백내장'으로 왼쪽 눈이 완전 실명했다. 그리고 2년 뒤, 교감신경 마비인 '파킨슨'이란 병으로 남은 오른쪽 눈까지 실명한다.

"죽을 작정으로 두 번씩이나

수면제를 한 통씩 먹었어. 하늘이 너무나도 원망스럽더라고. 그런데, 세상은 무심하게도 날 다시 실려놓더라고. 다시 깨어났을 때에는 앞으로 어머니 가슴에 못 박고 살지는 말아야 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새 들어 17년부터 돌아오던 '협심증'이 심해져 도졌다. 한달에 두 번씩 가야하는 병원 길이 시각장애인 김 노인에게는 '전선' 만큼이나 아슬아슬하다. 상의용사 생활지원비가 아닌 생활보조대상자로 지급받는 한달 28만원, 15만원 남게 들어가는 병원비와 약값, 그리고 5만원 남짓의 공과금을 치르고 나면 먹는 것마저 여유가 없다.

### 매일 끼니해결 최대고민

혼자 응크리고 방안에 틀어박혀 지내지만 한다는 김 노인. 매일 한 끼는 인근 복지관에서 도시락 보급을 받는다지만, 나머지 끼니해결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겨우 한달에 한번이나 할 수 있을까 말까한 팔래와 바깥일, 앞 못 보는 김 노인에게는 그야말로 사는 일이 '전쟁'이나 다름없다. '일주일엔 단 한 번이라도 집안일을 거들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으련만'

주소: 서울 노원구 상계3동 95-280호/전화번호: (02)933-2885

후원계좌: 중소기업은행 003-003240-01-031(예금주 김승기) 김철우 기자

6월 5일(수)

■국립광주박물관 '남도명품전' = 광주박물관은 7월 14일까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남도명품전'을 개최한다.

전라도 지역에서 발굴된 국보 103호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등 불교유물 25점과 백제 시대 국보급 유물 1백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062)570-7025

■티베트박물관 '인도·페르시아인 세밀화전' = 전남 대원사 티베트박물관은 9월 1일까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인도·페르시아인 세밀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아름답게 장식된 조그마한 낙타 배와 상아 등에 새겨진 미인도와 꽃, 새 그림 등 작품 80점이 전시되는 이 행사는 인도·페르시아인

### 신행 캘린더

미술의 묘미를 느끼는 좋은 기회 가 될 것이다. (061)852-3038

6월 8일(토)

1318 페스티벌에서 합탈댄스를 추는 청소년들.

■양정청소년수련관 '1318페스티벌' =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이 매주 토요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합탈댄스 경연, 탭댄스 공연, 열린 노래방 행사 등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9일까지

토요일 오후 4시 수련관 3층 '문화의 집'에서 계속된다. 누구나 신청하면 참가할 수 있다. (051)868-0750

■용진신학회 '성지순례' = 경남 밀양 사명대사의 생가와 지장도량 서산사를 찾아서.

사명대사는 서산대사와 함께 임진왜란을 맞아 승병을 일으킨 승병장이자 조선 시대 선불교 법통을 선승이다.

사명대사의 발자취를 더듬는 이 여행은 오전 7시 서울 을지로 5가 국립병원 앞에서 출발한다. 참가비 4만 5천원. (02)279-1191

6월 9일(일)

■미안비선원 '고승초청법회' = 미안사 사원인 서울 암사동 미안사 선원은 오전 10시 미안사 고승 우

조티카 스님을 초청, 정종 미안사 식법회를 봉행한다.

'대승불교와 소승불교가 돌아오자'를 강조하는 조티카 스님을 통해 남방불교 속에 전해 내려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어보자. (02)3427-0087

6월 10일(월)

■마야문화원 '위빠사나 단체명상' = 마야문화원은 불교 수행법에 관심이 많은 불자들을 위해 매주 월-목 오후 6시에 동국대 인도철학과 강사 안승준 씨를 초청해 위빠사나 강좌를 마련하고 있다. 강의는 무료. (02)722-1050

■문운사 '산사음악회' = 동양적 서정을 서양 음악인 재즈에 담아내는 독특한 음악 세계로 많은 한국인들에게 사랑받는 독일 재즈

밴드 '살타펠로'의 내한공연이 아름다운 비구니 수행도량 청도 운문사에서 열린다. (054)372-8800

6월 12일(수)

■두레생태기행 '문화유산답사' =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과 용주사, 용건릉을 찾아서.

두레생태기행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수원 화성,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었던 용주사,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의 무덤인 용건릉에 대한 문화답사를 실시한다.

이날 답사에는 서울시사편찬위원회 나카군 위원의 문화재 강의도 함께 계획돼 있다. 출발은 오전 10시 수원역 광장, 참가비 1만 3천 원이다. (02)712-5812

# "형편 어려운 신도부터 도와요"

## 우리 절 우리 신도

서울 무량정사 진숙녀 신도회장

"멀리 있는 양로원과 고아원의 불우이웃도 소중하지만, 절에도 못나오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서울 종로구 홍지동 무량정사(주지 평관스님)의 신도회장인 진 선혜(54, 본명 숙녀) 보살은 양로원, 고아원 등 복지시설의 불우이웃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있는 불우이웃을 돕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말한다.

절에 열심히 나오던 신도들이 어느 날부터 나오지 않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고부간, 부부간 등 가정 내의 종교갈등으로 절에 못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몇 년전 경제가 한창 어려울 때는 파산이나, 실직 등으로 가정경제가 몰락해서 절에 못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부터 무량정사 신도회는 가정형편이 몹시 어렵거나 아픈 가족들이 있는 신도들에게 쌀과 생활비, 약 등을 보내주기 시작했다.

무량정사 신도회가 다른 사찰과 달리 어려운 신도들부터 돕는 자비행을 펼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주지 평관스님이 평소, "동진일이 어렵다는 속담대로 의외로 자비행을

펼칠 대상은 우리 가까이 많이 있음에도 무심히 지나치고 시선을 먼 곳으로 두는 경우가 많다. 가까운 이웃부터 돕는 것이 중생구제'라며, 남모르게 신도들을 도와온 것을 보고 배웠기 때문이다.

무량정사 신도회는 복지시설 돕기에도 열심이다. 신도회는 지난 2월

### 환경훼손 방생 중단, 1년 두번 수륙재

### 온가족 공양계·조식으로 천수경 독경

신도기금으로 시립양로원을 방문하는 등 정기적으로 양로원과 고아원을 돕고 있다.

신도들의 참지돈을 모아 마련되는 신도기금은 사찰의 에어컨, 난로, 유리창 등을 구입하거나 신도들의 경조사 때마다 상조비로 전달되고 있다. 올 겨울부터는 최전방 부대로 군장병 위문을 다녀올 계획도 세우고 있다.

진 회장이 추진한 또다른 일은 방생법회를 중단하고 수륙재를 개최한 것. 정월과 8, 9월 두 차례 실시하는 수륙재는 수중고혼은 물론, 외롭게



무량정사 신도회 회원들이 5월30일 법당에서 보시기금 적립을 위한 판매용 열쇠고리를 포장하고 있다. 오른쪽 세번째부터 진숙녀 회장, 김두문 총무.

죽어간 모든 중생들의 영혼을 서방정도로 안내하는 기도다. 불자들이 외래어종의 무분별한 방생으로 생태계를 훼손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3년전부터 과감하게 방생법회를 중단하고, 의미 깊은 수륙재로 전환한 것이다.

진 회장은 매달 김보덕행(54, 본명 두문) 총무를 비롯한 신도들과 함께 사보(侍報)도 정성스럽게 봉투에 담아 발송한다. 주지스님의 법문을 사찰에 오지 못하는 불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다. 진 회장은 최근 스님이 쓴 교리해설서 <오늘 하루 세 끼 먹

었는데, 해가 저물었구나>의 출간도 돕고 있다. '당신은 어디서 오신 분 입니까'란 부제를 단 이 책은 신도들이 교리공부를 해야 한다는 주지 평관스님(무량본종 총무원장)의 평소 가르침을 펴기 위한 것이다.

선혜가 보살은 4년전 제3대 신도회장을 맡아 300여 신도들의 신행 뒷바라지를 해왔다. 법회가 있는 날은 미리 절에 와서 뒷산에 있는 600여년된 미륵불 앞에서 108배 또는 1000배를 하며 정성스레 기도를 올린다. 정기법회 때마다 외는 천수경 독경은 300여 신도들이 한 치도 오차 없을 정도로 일사불란하다. 앞으로 매달 첫째, 둘째 일요일에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다.

진회장에 가정은 불심으로 단란하다. 아침, 저녁 식사시간에는 남편이 종용(59) 거사와 아들 이준호(단국대

### 주치의 말

평관스님 무량정사 주지

진 선혜 회장은 불교를 공부하려는 마음이 간절해 다른 신도들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신도회 활동을 하면서도 항상 근검, 절약하고 절 살림을 일찍이 행겨서, 사찰 정제(淨助)를 소중히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되시는 분과 아들이 항상 천수경을 외울 정도로 생활속 수행을 합니다. 주부가 신행의 모범을 보이니까, 남편과 아들도 자연스럽게 불교를 공부하게 된 겁니다. 가정과 절에서 정성껏 살림을 도맡아 하는 진 회장은 마음의 심주(心柱)가 있는 진정한 보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진 회장은 25년전부터 무량정사와 인연을 맺었습니다. 19년전 무량정사가 홍지동으로 이전할 때 남편인 이종용 거사와 함께 사찰의 법당을 무상으로 수리해 줄 정도로 부부가 사찰일에 열심입니다.

전자공학과 4년 군등은 가족이 '공양계'를 외운다. 부부는 집에서 조식으로 함께 천수경을 독경할 정도로 신심이 돈독하다. 남편인 이종용 거사는 운수업을 하고 있는데 초파일 등 신도들이 많이 오는 때는 중형버스를 경북공역에서 무량정사까지 운행토록 할 정도로 절 일에 헌신적이다.

김재경 기자

## 〔공〕 불교(교양)대학 연합회 창립 〔고〕

그 동안 한국불교는 기도와 의례가 신앙의 주된 전통불교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최근 일부사찰, 신행단체, 포교당을 중심으로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하여 부처님의 경전을 바르게 알리는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반대중과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현재 불교교양대학은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 도시와 벽촌까지 개설하여 그 운영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교교양대학의 운영자와 종사자 그리고 수강자를 위한 정보교환, 협력, 행정지원 등 상호교류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불교교양대학과 부처님 정법포교, 수행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를 갖고자 연합회를 결성키로 발기(2002. 5. 21)하여 널리 공고하오니 불교대학 운영자와 관계자께서는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2. 6. 20(목) 오후 2시
- 장 소 : 서울 송현클럽(한국일보 13층)
- 대 상 : 불교교양대학 현재 운영자
- 목 적 : 1. 정보(교수, 교재)교환 2. 교양대학 협조지원사업 3. 교재공동번역 4. 기타 연계사업
- 문 의 : 02)732-1206(서울 동산불교대학) 041)624-6555(대전 보현불교대학) 051)642-6242(부산 동국불교전법대학) 032)437-9760(인천 새세계불교대학)

### 한국불교(교양)대학 연합회(가칭)

발기인 : 김재일(동산불교대학), 한정섭(불교통신대학), 오상현(보현불교대학), 노혜광(새세계불교대학), 김무칼스님(동함불교대학), 조계환(금강불교대학), 정암스님(대승사불교대학)

## 부처님 말씀 · 깨침의 소리

# 불교성전

5년간의 준비끝에 새롭게 출간된 불교성전! 오랫동안 불교를 믿거나 공부하고도 교리를 이해하지 못한 불자나 초심자도 『불교성전』을 펼치는 순간 환희와 신심이 넘칠 것입니다. 지금은 종교도 무한 경쟁시대! — 佛法을 바로 알아야 불교를 지킵니다.

### 중요 차례

- ◎ 제 1 부 경전의 말씀
  - 제 1 장 서 품
  - 제 2 장 교리강령품
  - 제 3 장 불 타 품
  - 제 4 장 신앙 품
  - 제 5 장 업 연 품
  - 제 6 장 자 치 품
  - 제 7 장 대 치 품
- ◎ 제 2 부 간추린 불교
  - 제 1 편 부 처 님
  - 제 2 편 가 르 침
  - 제 3 편 수 도
  - 제 4 편 교 단
- ◎ 제 3 부 독송경 · 발원문
  - 천수경 · 예불문 · 반야심경
  - 관세음보살보문품
  - 원각경보안보살장
  - 화엄경보현행원품
  - 부모은중경
  - 법성계 · 무상계
  - 기도발원문
  - 천도법어 · 찬불가

4×6판 최고급 호외금장 양장제본 70g 고급 미색 모조 600페이지 값 18,000원

전국 유명서점 및 불교서점에 있습니다.

법보시 및 단체주문시 특별인쇄 공급합니다.

☐ 계좌번호: 농협 053-01-102503 예금주: 김정길

弘法院 (02)739-8745~6

